



Julian Opie, Walking in Sinsa-dong I., 2014

2.13~3.23 Julian Opie 줄리안 오피 개인전

국제갤러리 영국 작가 줄리안 오피의 두 번째 국내전시로 빠르게 흘러가는 도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대인의 일상, 특히 도심을 가로지르는 군중의 걷는 모습들로 구성됐다. 특히 이번 전시를 위한 신작에는 서울을 배경으로 한 사람들을 관찰한 새로운 LED 회화 및 다채로운 색상의 LED 패널의 신작들을 선보일 예정이다. ☎ 02)735-8449